

태국팀 3월 보고서

By. Raonatti 13 thailand

아피소개



김이다경

태국어 이름: sompor (ซอมปอร์)

이름의 뜻: patient and beautiful



김리원

태국어 이름: Dong-keaw (ดงเกอว)

이름의 뜻: pure mind and cheery

김주현

태국어 이름: Boon-nark (boon-nark)

이름의 뜻: Great & Protection



정건휘

태국어 이름: ko-son (ko-son)

이름의 뜻: 화려하고 예쁜 화초

일정표 소개

By. Raonatti 13 thailand

SUN	MON	TUE	WED	THU	FRI	SAT
			4	5 치앙마이 도착	6 산티팜 YMCA 사오힌 YMCA 방문	7 산캄펑 YMCA YMCA에 대한공부
8 산캄펑YMCA 수업 참관 (영어수업 & 태권도)	9 Welcome party	10 사오힌 YMCA대체 에너지 및 환경교육	11 치앙라이 고산지역 방문 1박2일	12 치앙라이 고산지역 방문 1박2일	13 Fire break Pa-hiang village 방문	14 아리 선생님 티칭스킬 강좌
15 아리 선생님 티칭스킬 수업	16 Day off	17 태국어 수업	18 태국어 수업	19 태국어 수업	20 Fire break Pa-hiang village 방문	21 사오힌 YMCA 수업 준비 및 진행
22 사오힌 YMCA 수업 준비 및 진행	23 Day off	24 태국어 수업	25 태국어 수업	26 태국어 수업	27 메조대학교 방문 (캠퍼스 투어 및 해양교육)	28 산캄펑 YMCA 분반 별 수업진행
29 산캄펑 YMCA 분반 별 수업진행	30 Day off	31 태국어 수업 (중간고사)	<p>라운아띠 12기 태국팀 3월 일정표</p> <p>(일정은 유동적으로 바뀔수도 있으니 주의!)</p>			

활동 소개

By. Raonatti 13 thailand

Welcome Party & Friendship Night RaonAtti 1st

welcome PARTY

태국 도착 4일째 되던날

JKY 스쿨 학생들과 함께 'Welcome Party'가 열렸다.

학생들은 각자 춤, 노래 등을 선보였고 우리는 한국 전통 사물놀이 공연을 보여주었다.

공연이 다 끝난 뒤에는 리브커피 카페에 모여 음료를 마시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하루. 많은 분들이 한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활동사진





활동사진



Thai class

일주일에 3번 우리는 태국어 수업을 했다.
산캄펑 Y staff이신 'fai'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셨다. 선생님은 대학교
에서 한국어를 전공하셨고 우리가 하는 한국어 농담도 다 알아들을 만큼 한국어
에 유창하신 분이셔서 태국어를 재밌게 배울 수 있었다.

산에서의 1박 2일(1박1문)

태국에 와서 처음으로 1박2일 동안 밖으로 나가서 생활했던 일정. 태국 왕실
에서 주관하는 로열프로젝트를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보고 체험 할수 있었고, 빌
리지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지에 대해 배울수 있었
던 일정. 로열프로젝트와 관련된 딸기농장 및 마을에서 운영하는 커피팜 방문



활동사진



산에서의 11박 2일(수업)

로열프로젝트와 관련된 지역 및 기관을 방문하는것 이외에, 진행된 우리의 첫 수업.
7살부터 초등학교 나이또래 정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두가지로 진행이 되었는데, 첫번째는 쉽게 따라할수 있는 노래와 율동위주로 수업
하였고, 두번째는 여러가지 색깔의 종이를 이용해 종이접기수업을 진행



활동사진



Work camp



매년 진행중인 워크캠프는 치앙마이의 '사오힌 YMCA' 와 일본의 '고베 YMCA'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캠프로 마을에 들어가 아이들의 도서관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한다. 이번에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 일본 그리고 라온아피 4명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비록 우리는 미리 정해진 스케줄이 있어 마을에 까지 같이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같은 또래의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문화를 나눌 수 있었던 캠프!



활동사진



와트 프라탁

도이수텝

치앙마이에서 가장 높고,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사원이다.
그 만큼 높은 계단을 하나하나 다 걸어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
땀 흘리며 도이수텝 사원에 들어섰을 때, 화려한 불상들과 엄숙한 분위기 그리고
지긋한 향 냄새가 우리를 반겨주었다.



Fire Break

산캠프 YMCA에서 하는 업무중의 하나로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협동 프로젝트.
Pa - Hiang Village에서 진행되었으며
3월 한달 동안 주일에 한번씩 2번 진행되었다.



Fire Break

차를 타고 산캠페인에서 20분정도 달린 후 도착한 Pa - Hiang Village

1주차에는 마을에 도착한 후에 우리는 청소도구를 받은 후 지역주민들과 함께 산 주위와, 사원 주위에 쌓인 낙엽과 나무들을 치우는 환경정화 작업을 실시.

2주차 무렵에는 Save the turtle 프로젝트를 위해 밀바닥 작업을 진행!



활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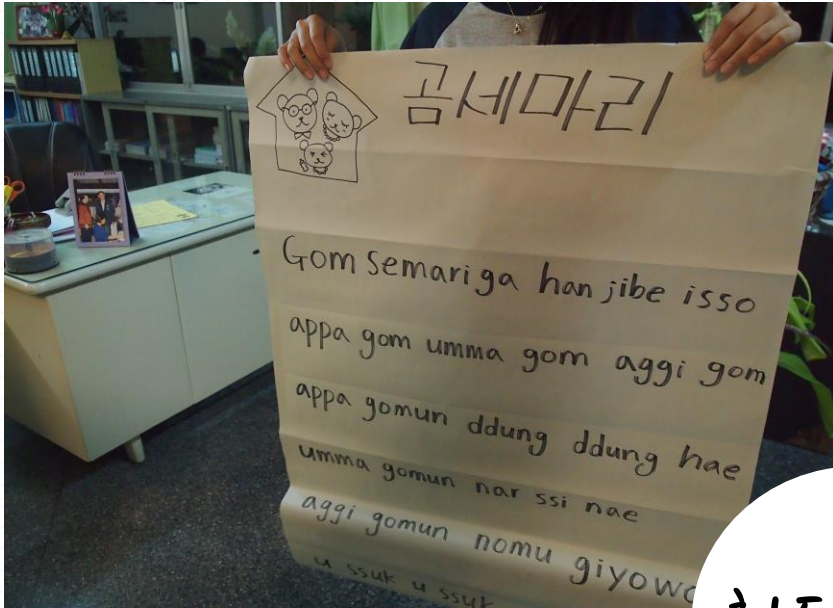
“Save the Turtle” 프로젝트란?

산캠핑Y와 빌리지가 같이 하는 협동 프로젝트로서, 건기가 되면 산에 사는 육지 거북들이 먹이와 물을 찾으러 산을 내려와 주위 강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동하는 와중에 많은 거북이들이 길에서 객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건기에도 산 주위에 거북이들이 쉴 수 있는 슈미터를 만들어서 거북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젝트! fire break를 하는 도중 거북이를 볼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정리작업만....** 했다는 소문

YMCA

수업진행

사우힌 YMCA와, 산캄페YMCA에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였으며, 주로 지역Y에 랭귀지 스쿨을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 수업내용은 주로 어린 아이들도 쉽게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놀이로 구성하였으며, 놀이 이외에도, 랭귀지 스쿨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영어단어를 이용해서 즐길 수 있는 간단한 놀이 준비.



활동 사진



Day OFF

자전거
여행



치앙마이
투어



활동 사진

맛집
탐방



소소한
일탈



개인 소장

By. Raonatti 13 thailand

김이다경

별서 보고서를 써야 하는 한 달이 지났다. 태국에 와서 많은 활동들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태국이 어떤 나라인지 조금 알아가고 있는 것 같다. 라온아띠를 왜 지원했을까!!!!라는 질문과 목적에 대해서 감사님이 계속 생각하라고 해서 했는데 답이 별로 나오지 않았다. 태국에는 산도 많고 나무도 많고 풀도 많은데 산과 나무와 풀은 내가 다 싫어하는 것들이다. 제반에 피프레가 산캠핑 정원을 정리하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무를 다 잘라버리자고 했다. 별케도 없어지고 미관상 더 좋아 보일 것 같은데 노노노노!!라고 강하게 부정해줬다. 태국사람들이 자연을 아끼고 보존 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작정 싫어하지 않고 좋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외에는 이런저런 생각들은 많지만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고 이제 겨우 한달 지났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보고 싶다.

김지원

아직 마을에 들어가서 수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그런 큰 활동들이 없어서 팀원들 4명에서 산캠핑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그 시간 동안 같이 즐기고 나눌 수 있는 것도 찾고 하면서 한국에서 보다 서로 더 얘기하고 나눌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태국에 와서야 진짜 나를 멀리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다. 이전에 한국에서의 내 모습이 어땠는지, 이렇게 4명에서 생활할 때 나의 모습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배우고 찾아가는 과정이라서 생각이 더 많이 깊어진다. 감사님께서 말씀하신 '라온아띠'에 대해서도 더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다. 앞으로 4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다. 열심히 해야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데. 꼭 뭔가 플러스가 되지 않더라도!!

김주현

태국이라는 나라에 오기 전 부터 항상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그곳에 간다면 어떤것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도착한 태국. 기후가 다르고, 각자 생활하던 문화가 달라서 인지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고생한 덕분에 이제는 조금 더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것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드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생각만 하다가는 한국에서처럼 어영부영 끝날거 같아서 작지만 하나 실천하기를 시작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말리 프로젝트". 지금 내가 살고있는 산캄펜이라는 동네에는, 일주일에 한번, 매주 토요일마다 워킹스트리트 이라는 하나의 시장이 열린다. 도로의 양쪽 끝을 바리게이트로 막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좌판을 열고, 많은 물품을 판다. 그 중에서도 나무와 꽃을 파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을 보고 생각 해본것이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월요일(monday) 부터 금요일(friday) 까지 간식 사먹을 돈을 조금 줄이면 매일 10바트(한화로 340원) 씩 저금해서 금요일까지 50바트 라는 금액을 모을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돈을 바탕으로 토요일날 열리는 시장에서 말리(자스민)라는 조그마한 문목을 살수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사온 문목은 지금 ymca마당에서 뿌리 내리고 잘크고 있는중이다! 처음에는 항상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ymca스텝들에게 무슨 선물을 할지 고민하다가, 향기가 좋고, 모두가 좋아하는 식물이라는 것을 듣고 선물한 말리 였지만, 이것을 계기로 이제는 매주 돈을 모으고 프로젝트를 한번 실천해볼 예정이다. 내가 먼저 열심히 하면, 누군가도 동참해 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살짝 품고.. ㅋ ㅋ 열심히 해봐야겠다.

정건희

정말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가장 걱정이었던 더위에도 나름 적응해 가고 있고, 그 놈의 팀원들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태국의 국민성에 대해 걱정하는 썬더, 눈썹이 공격적인 덕 깨우, 감성이 풍부한 분, 낙! 까지. 다 이해하고 끌어안아 살고 있습니다. 이전 숫자 세는 것도 꽤나 능통합니다. 하지만 능통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보면 씹쓸하기도 합니다. 어저면 마을보다 쇼핑몰과 시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기도 합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전 LV 1의 초보 자원활동가일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많은 모험들과 파티경험치로 많은 레벨을 올리도록 힘쓸 것입니다! 썩!썩!



Thank you
By. Raonatti 13 Thailand

